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가을 갈치

할머니는 늘 생선을 발라 주셨다. 그래서 난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생선 바르는 일에 서툴다. 행여 바닷가에서 살아온 분들과 식사라도 할라치면 눈치가 이만저만 보이는 게 아니다.

먹는 걸 업으로 삼다 보니 밥 굶을 일은 없다. 아니, 오히려 평균적인 한국인보다 훨씬 잘 먹고 다닌다. 특히 취재를 목적으로 음식점을 다니다 보면 도처에서 할머니를 만난다. 공장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이야 어느 부분 할 것 없이 맛이 일정하지만 육류, 생선, 채소 등은 사정이 다르다. 종류, 계절, 크기에 따라 맛있는 부위가 따로 있다. 손님에게 어느 부위를 낼 것이냐는 오로지 요리사의 칼끝에 달렸다. 상대의 목적을 간파한 요리사의 칼끝은 언제나 가장 맛있는 부위를 향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취재 덕을 보는 거의 유일한 순간이다.

이맘때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갈치구이 한 토막이다. 1kg에 육박하는 큼지막한 제주도 성산포산 생갈치 한 마리를 가져 온 주인장은 그 찬란한 은빛을 자랑만 하고 다시 거둬 갔다. 그리고는 잠시 후 갈치 한 토막을 구워 내왔다. 나는 주인장의 세심한 배려와 통 큰 배포에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다.

여기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갈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는 '모양이 긴 칼과 같다. 입에는 단단한 이가 촘촘하게 늘어서 있다. 물리면 독이 있다. 맛이 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칼처럼 생겨 검어(劍魚) 또는 도어(刀魚), 허리띠 같아서 대어(帶魚), 칡넝쿨처럼 길어서 갈치(葛侈)라고 불렀다. 칼이든 허리띠든 칡넝쿨이든 가늘고 긴 생김새를 나타낸 것은 똑같다. 이름이 다양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그만큼 흔한 생선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갈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꼿꼿이 선채로 헤엄을 친다. 쉴 때도 서서 쉰다. 그 모습이 바다 속에 꽂힌 한 자루의 칼을 연상시킨다. '칼잠을 잔다'는 말 역시 서서 자는 갈치의 습성에서 유래됐다.

갈치는 비늘이 없는 대신 몸통이 온통 은빛을 내는 흰색 가루로 덮여 있다. 늘씬한 자태를 감싸고 있는 은백색의 화려한 컬러가 매력적이어서 '은갈치'라고 한다. 하나 상처를 입거나 은빛이 벗겨지면 이내 검게 변한다. 살아서 아름다운 것은 죽어서도 아름다워야 상품 가치를 인정받는다. 때문에 은갈치는 낚시로 잡아야 한다. 그물로 잡으면 갈치끼리 부딪혀 색이 검게 변하는데 이를 '먹갈치'라고 한다.

연중 잡히지만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잡은 가을 갈치의 맛이 가장 뛰어나다. 수온이 내려가면 월동 준비를 위해 먹이를 충분히 섭취해 살이 도톰해지고 기름이 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을에 제주도 성산포 근해에서 낚시로 잡은 은갈치를 최상품으로 친다.

최상품에도 등급이 있다. 가장 대중적인 제주 은갈치의 크기는 10kg 한 박스에 33마리가 들어간다. 한 마리당 중량이 300g 정도 되는데 시중에서 흔히 판매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10kg 한 박스에 11~13마리가 든 것이 있다. 이정도 크기의 갈치는 특대형으로 분류되며 한 마리당 중량은 800g 이상이다. 특대형으로 분류되는 갈치는 제주도에서 어획되는 은갈치 중에서 3% 정도에 불과하다. 때문에 어획량에 따라 마리당 3만~5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된다. 명절 선물용으로나 어울리지 평소 저녁 밥상에 올릴 엄두는 나지 않는 물건이다.

앞서의 주인장은 이 계절에 가장 맛있는 제주 은갈치를 그것도 고작 3%밖에 잡히지 않는 특대형을,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부위인 뱃살이 포함된 딱 한 뼘 정도만 구워서 내온 것이다.

노르스름하게 굽힌 표면을 젓가락으로 살포시 누르니 기름이 자글자글했다. 갈치 가시 발라 내는 순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다. 통통한 가운데 살점을 큼지막하게 떼어 내 입으로 가져갔다. 짭조름한 살점이 장독 뚜껑에 내려앉은 싸락눈마냥 사르르 녹아내렸다. 무심하면서도 마음을 당기는 맛. 그것으로 끝인가 싶은 순간, 고소한 기름이 긴 여운을 남겼다. 갈치 한 토막을 먹는 내내 할머니가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원재훈 작가는 음식 에세이집 '내 인생의 밥상'에서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에게 원고 청탁을 하러 갔다가 얻어먹은 밥 한 끼를 소개하고 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다 가신 권정생 선생은 멀리서 찾아온 손님에게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를 내어 주셨다. 특별한 대접이라고는 간장에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서 미소 지은 것이 전부. 하지만 작가는 그때 비로소 쌀밥과 간장의 절묘한 맛을 체험했노라 회상한다.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최고가 아닌 최선이다.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마음은 충분히 전달된다. 내게는 갈치 한 토막이 그랬고 원재훈 작가에게는 간장 한 종지가 그랬을 것이다.

올해는 제주도의 은갈치도 전라도의 먹갈치도 풍어라고 한다. 너무 많이 잡혀 오히려 가격 폭락을 걱정해야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맛이 오른 가을 갈치를 부담 없이 즐길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 오늘 저녁 밥상에는 갈치구이 한 토막 올려 보시는 것은 어떨지? 이왕이면 당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큰 것으로!

〈맛칼럼니스트〉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 說

보육시설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적극 대응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보육시설 인권 침해 관련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면서도 법적 고발 없이 행정 시정 및 관련자 징계 권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 개선 등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인권위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보육시설에서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육원생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진정을 접수받았다. 하지만 당시 진정인이 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조사를 종결했다가, 같은 해 12월 민간단체로부터 원장 및 직원들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제보받은 뒤인 올 1월에야 조사에 착수했다.

학대 사실을 인지한 지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조사에 들어간 인권위는 해당 보육 시설의 보육원생에 대한 학대 행위를 확인, 지난 7월 광주시와 보육시설 운영 법인에 해당 원장 해임 등 중징계와 관내 아동 양육 시설 관리 감독 강화 등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냈다. 하지만 운영 법인과 광주시는 현재까지 인권위의 결정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애초 진정인이 조사를 거부해 직권 조사가 늦어졌다는 인권위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는 보육원생 입장에서는 도중에 얼마든지 심경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운영 법인과 광주시가 권고 결정을 아직 이행치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양 기관의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는 한가한 입장이다.

보육원생들은 그러는 사이 2차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고 한다. 인권위 역할은 국민을 부당한 폭력과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인권 침해 기관을 적발해 실적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인권 침해 사실을 적발하면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치워도 치워도 쌓이는 해양쓰레기 대책 없나

어제 '전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용역'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전남도가 해양쓰레기 전문 연구 기관인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매년 도내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는 최소 1만7915t에서 최대 3만5510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어선과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해상 유입 쓰레기가 최대 1만3694t, 외국에서 해류를 타고 유입되는 쓰레기가 최대 2만1120t으로 산정됐다. 전남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17만6807t 중 23%인 4만575t을 차지한다.

전남도는 연간 2만1589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연간 쓰레기 발생량(평균 2만6713t)을 감안하면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해도 매년 5000t 넘게 쌓여 가는 셈이다. 특히 도내 유·무인도의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8만7482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양식 어업이 발달한 서남해안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청정한 바다 환경은 고품질 양식과 어업은 물론 해양 관광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 수거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적 관리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민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또 외국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공조도 필요하다.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처리 비용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 입장에서는 수거·처리 예산이 부족해 애로가 적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국비를 70%로 상향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해 '해양쓰레기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해 할 것이다.

의료칼럼

속담으로 알아보는 눈 건강 이야기

박 진 우
보라안과병원 원장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지만 눈이 가장 소중하다는 뜻일 것이다. 눈은 우리 몸 최고의 정보 수집기관이며 이러한 눈에 이상이 생겨 시력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식물인간 상태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장애가 되는 것이니 눈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속담 속 눈 건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마음의 맑고 흐림이 자신의 눈에 나타나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진하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눈을 깨끗하게 하려면 절제된 삶은 기본이며 눈 주위 위생 상태도 신경 써야 하고 다래끼가 반복된다거나 렌즈를 오래 사용하면 마음의 거울인 눈이 충혈되고 결막이 부어올라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970년대에는 근시 등으로 안경을 쓰는 초등학생 비율이 15% 정도였는데, 2010년대에는 53%로 늘었다고 한다. 따라서 게임, 인터넷을 하더라도 한 시간에 10분 정도의 휴식이 필요하고, TV 등을 시청할 때도 실내 조명은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눈 깜짝할 사이'라는 표현은 매우 짧은 순간을 나타내는 관용구인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라는 농담이 있듯이 눈꺼풀을 한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0.3초 정도로 빨라 비비탄 같은 것이 날아와도 눈에 직접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요즘같이 스피디한 사회에서 '10초 라식'이라고 하여 10초 이내에 시력 교정을 이룰 수 있는 수술법이 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심봉사처럼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할 만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눈은 자주 깜빡여 주는 것이 좋은데 성인은 1분에 대략 15번 정도 깜빡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하지만 주위에서 스마트폰으로 메신저나 게임을 하는 사람을 지켜보면 거의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100% 안구 건조증이 발생한다. 따라서 적당한 눈 깜빡임은 눈 건강을 지키는데 무척 중요하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속담은 터무니없이 얕은 생각으로 남을 속이려고 한다는 뜻으로 친구가 두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고양이처럼 아웅한다고 누가 이 친구를 고양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간혹 안과적인 주의 사항을 안 지키면서 불편하다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일례로 렌즈 착용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력의 개선과 깨끗한 눈을 원한다면 이것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인 셈이다.

'눈엣가시'는 눈에 박힌 가시를 말하는데 눈에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아프고 원망스럽겠는가. 이 속담은 몹시 미워 항상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안과 환자 중 많은 경우가 눈에 이물이 들어가서 내원한다. 이 경우 함부로 눈을 비비면 절대 안되고, 눈에 안약 등을 넣고 많이 깜빡여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빨리 안과 전문 병원을 찾아 원인을 제거해야 호전된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처럼 불타는 사랑을 나타내는 이 속담은 사랑에 빠지는데 있어서 눈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눈에 콩깍지가 아니라 백내장 등 질환이 생기면 세상이 흐려 보이고 물체가 틀어져 보여 계단을 오르거나 등산할 때 위험하며, 정작 중요한 사랑하는 이의 모습이 희미해진다. 이 경우 적절한 안과 치료를 받으면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다시 맑은 시야로 볼 수 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사랑하는 딸의 웃는 모습, 나를 춤추게 하는 엔돌핀이 아닐까.

눈에 대한 많은 속담들이 있다. 대다수가 눈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안과 의사로서 중요한 눈을 돌보는데 책임감도 느끼지만, 건강한 눈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기 고

도시철도 2호선으로 교통 복지의 시대를 열자

윤 판
도시교통연구원 원장

도시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광주시의 모습은 점점 고밀화, 광역화되고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거, 상업, 업무 등을 비롯한 도시 환경이 전반적으로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의 향상으로 통행 횟수와 통행 거리 또한 크게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늘어나고 있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는 방법으로는 자가용과 같은 개인 교통 수단이나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나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 교통 수단이 중심이 된다면 아무리 많은 도로나 주차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천문학적인 도시 비용만 증가하게 되고 교통사고, 환경 오염 등의 문제 역시 커지게 된다. 따라서 대도시일수록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자동차를 줄여 한정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증대시키며 환경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생의 대중교통 정책이 필연적이다.

소규모 도시에는 자가용이나 버스 중심으로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도 있으나 대도시나 거대 도시의 경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광주시와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대도시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도로 및 교통 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가로망 구조 역시 비정형으로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 구축이 어렵고 교통 지체 발생 지역이나 불법 주차와 불법 도로 점용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버스 운행 시간을 맞추는 정시성을 담보할 수도 없다. 버스운영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간선, 지선, 순환 등의 노선 체계를 구축할지라도 봇물 같은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간선 노선은 모두가 지선화되고, 버스정류장 운영마저 매우 유동적이어서 시간에 쫓기는 버스 이용자들을 자가용으로 밀어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광주시의 물적 또는 비물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시성과 쾌적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하 공간을 활용한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 정책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혹여 선진국 중소도시에 있는 트램 등의 노면 전차나 간선 급행 버스 개념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 않는 도시나 짧은 구간에서는 매우 유용하리라 본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따라 간선 교통축 중심의 대로급 이상의 도로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왕복 5·6차로 정도의 도로를 지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트램이나 간선 급행 버스 설치시 3차로 이상이 소요되므로 잔여 도로 폭은 1차로 수준이어서 불법 주차나 물건을 싣고 내리는 조업 주차라도 발생한다면 자동차 교통은 마비된다.

이제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도시철도 2호선을 조속히 건설함으로써 무질서한 도시의 광역화를 막을 수 있는 도시의 발전축을 만들고 도심과 도심, 부도심을 비롯한 지역간 연계성을 확보하며, 역세권 중심의 개발 등을 비롯하여 밀도 있고 균형 잡힌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의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교통 비용을 크게 줄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철도의 건설비나 운영 적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으나 광주시의 경제 규모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더라도 광주시의 부채는 예산 규모의 16~18%로 행안부 적정 기준 25% 이하를 충족한다고 한다.

지하철 건설 및 운영으로 흑자를 내는 도시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자나 보행자에 대한 불편 비용 등에 대하여 소홀하였던 가진 자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부의 재배분와 이들에 대한 기회 비용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 비용이 결코 크다고 만 할 수 없고 빈익빈의 가속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 복지 차원의 진정한 교통 복지로 해석될 수 있다.

더 이상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바라는 다수의 침묵하는 시민의 권리와 편익이 소수의 강력한 목소리에 무시되는 일이 지속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주시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철도 2호선의 조속한 개통으로 누구나 행복과 편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교통 복지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無 等 鼓

무등산과 책선물

"베시에게. 1944년 2월 7일에 1월1일자 당신 편지를 받았어요. 당신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답장을 보내느라 진을 뺀 이후, 저는 군화 신은 발레리나처럼 서투름을 느끼고 있어요." 세 문장의 짧은 글이지만 '암송'하는 게 만만치 않았다. 몇 번은 조사에서 틀리고, 몇 번은 당신이라는 단어를 빼먹고, 또 한 번은 답장을 '보내느라'를 '쓰느라'로 잘못 암송했다.

지난 주말 무등산에 놀러갔다가 즐거운 경험을 했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무등울림' 행사가 열리고 있는 전통문화관에 들렀더니 '필사와 암기 백일장'이 열리고 있었다. 잔디밭 책장에서 갖고 싶은 책 한 권을 고르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필사한 후, 세 문장 이상 외워 암송에 성공하면 내가 선택한 책을 받을 수 있는 행사였다.

책장에 진열된 책은 다채로웠다. 내가 암송한 건 사이먼 가필드의 '투 더 레터-편지에 관한 거의 모든 것에 대하여' 속 문장이다. '개인적인 편지가 2000년간 지녀 온 열정적이면서도 삶을 바꿔 놓는 힘에 대한 연서'라는 소개 글에 혹해 선택한 책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빗발치는 전장에서 한 병사가 연인 베시에게 보낸 편지글 중 특히 '군화 신은 발레리나'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어 이 문장을 택했고, 결국 일곱 차례 도전 끝에 암송에 성공했다.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고르고 암송을 하기 전 '내 인생의 필기구'로 꼽는, 잘 깎은 '블랙윙' 연필로 정성 들여 문장을 필사하는 경험도 즐거웠다. 책의 내용을 손글씨로 써 본 경험이 최근에는 거의 없었으니까. 옆자리의 말괄량이 여중생은 '고양이' 관련 책을 골라 열심히 외우는 중이었고, 시집을 선택한 한 주부는 단 '한 번 만에' 암송에 성공한 뒤 흐뭇해했다. 짧은 대화체의 만화책을 골라오는 기지(?)를 발휘한 이도 있었다.

마침, 무등산에 단풍 소식도 전해졌다. 산행을 즐기고 내려오는 길, 주민들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음식도 즐기고 공연도 감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근사한 '책 선물'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행사는 이달 말까지 매주 주말 오후에 열린다.

/김미은 편집부국장·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